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im, Min-Jung (Soongsi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Jun, JuSung¹⁾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barri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students from a specialized high school in Suwon, Gyeonggi-do, was conducted. Hayes' (2022) PROCESS macro (Model=7)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on the final 194 copies of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mployment barrier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co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employment barriers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employment barrier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social support and, on the other hand, to increase thei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Key Words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employment barriers
social suppor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1) Corresponding Author: Jun, JuSung,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06978 / E-mail: jnet@ssu.ac.kr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민정 (숭실대학교, 박사과정생)

전주성¹⁾ (숭실대학교, 교수)

<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수원 소재 A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194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7)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취업장벽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향상을 통해 취업장벽을 낮추고, 한편으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회적지지,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특성화고등학교

1) 교신저자: 전주성, 교수, (06789)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 E-mail: jnet@ssu.ac.kr
논문투고일자: 2023. 2. 25 / 심사일자: 2023. 2. 27 / 게재확정일자: 2023. 3. 12

I. 서론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국에 465개가 있으며, 178,032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3). 특성화고등학교는 기초직업교육의 수행을 통해 산업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3).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 단계에서 직업적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직업, 진로선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대다수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취업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진학했으나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Byoun, 2017),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 졸업자와 급여에서 차이가 나거나 승진 기회에 제한이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점차 낮아지고 대학진학률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직업계고등학교 전체 졸업자의 취업률은 50.7%로 나타났으며, 그중 마이스터고등학교는 71.2%, 특성화고등학교는 49.2%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비해 20% 이상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20). 근원적인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보다는 비교적 낮은 입학 성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Kim, 2018). 이러한 여러 상황으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선택과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다. 청소년 시기는 진로발달 단계에서도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Super, 1990)이므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에 맞춰 자신의 목표를 향해 실천해 가는 노력, 즉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은 올바르게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혹은 진로결정 후에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Kim & Kim, 1997). 유사한 맥락에서 Hong & Jeong(2016)은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지지와 취업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도움 및 자원이다(Nolten, 1994). 사회적지지는 청소년 시기에 겪는 진로 고민으로부터 스트

레스를 낮추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Kim, 2020). 사회적지지를 받는 학생은 진로준비행동에서 문제에 직면할 경우 높은 자신감으로 긍정적인 결단력을 갖게 된다(Kim, 2016). Kim(202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역시 높아진다고 하였다.

취업장벽은 취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노동시장의 차별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부딪치는 장벽이다(Kim, 2009). 취업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낮게 인식된다(Ahn, 2015). Kim(2004)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취업장벽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Go(2015) 역시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부족 등의 취업장벽을 진로준비행동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요컨대, 사회적지지는 취업장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이 취업장벽 요인에 의해 낮아지게 되면 진로준비행동 역시 낮아지게 된다(Ahn, 20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과제들을 해결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의 과업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핵심변인으로 작용한다(Lent & Hackett, 1987).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에 도움을 주고, 미래의 다양한 계획이나 진로결정, 목표 수행에 있어 중요한 심리 기제가 된다(Lee, 200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지며(Yoon & Ahn, 20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부족은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친다(Youn & Kim, 2013). 한편, Park(2019)은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 보면,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장벽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 취업장벽 사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선택과 준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교육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개인에게 실제로 제공되거나 개인이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자원’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Park, 1985). 사회적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진로 관련 활동에 도움을 준다(Kim, 2016). 청소년기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기로, 청소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화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되고,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Ferry et al., 2000).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보다 직업계획의 수준이 높는데, 이는 청소년 자신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잘 찾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의 노력만큼이나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Lee, 2002).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M. R. Lee (2001)의 정의에 따라 청소년이 부모, 교사, 친구 등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도움 및 자원을 의미한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 정립은 Taylor & Betz(1983)가 ‘커리어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를 개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Betz et al.(1996)은 이를 ‘진로결정을 위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Pyun(2015)은 진로의 영역에서 ‘개인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Lee(2000)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을 개인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신념 또는 유능감으로 보았다. Taylor & Betz(1983)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신념과 자신감(Taylor & Betz, 1983)으로 정의한다.

3. 취업장벽

취업장벽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애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경험 중 하나로 취업을 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이 느끼는 일종의 장벽이다(Youn, 2012). Kim(2009)은 취업준비 중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노동시장의 차별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취업장벽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장벽들은 취업준비, 직장생활 등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이 취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여러 경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

거나 방해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다(Lee & Jyung, 2010). 이는 진로를 취업으로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한 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 요소로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장벽을 의미한다(Lee & Kim, 2015). 취업장벽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가 된 변인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 등이었으며 진로미결정 상태일수록 취업 장벽 인식수준이 높아졌다(Swanson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취업장벽은 개인이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방해요소(Lee & Jyung, 2010)를 의미한다.

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취하는 행동,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Kim, 1997; Park, 2003). 이는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의 진로준비과정(Phillips & Paziienza, 1988)이며, 바람직한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결정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행위 등 모두를 포함한다(Jin, 2010). 확장하여, 개인의 진로목표를 탐색하는 모든 진로 탐색 행동 및 미리 직업을 경험해보고 자신의 취업을 준비하는 행동까지도 진로준비행동(Lyu, 2012)으로 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자신의 진로와 관계된 인지나 태도가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Kim, 2011)으로 바라본다.

5. 사회적지지,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사회적지지,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이다. Cauce et al.(1994)는 부모의 큰 지원과 애정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잘 설정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정보추구욕구가 높으며, 실제로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 수준도 높다(Chi, 2010). Kim(2011)은 교사는 청소년의 진로발달 초기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친구관계는 진로발달의 전 과정에 걸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고등학생은 부모, 교사, 친구에게 칭찬이나 인정 등 평가적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활발히 한다(Park, 2006). Jeon(2019)은 대안교육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적지지와 정보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Lee & Chun(2016) 역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고 진로, 직업정보와 문제해결 능력, 미래계획 수준이 높아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한다고 말한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취업장벽 간의 관계이다. Min(2020)의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연구를 보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는 취업장벽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다. Cho(2020)의 취업준비생 대상의 연구는 사회적지지 가운데 실질적지지, 정보적지지 등 현실적인 지원이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돈독히 하여 취업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Yu et al.(201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이다.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지지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인다(Min, 2019). Song & Hong(2010)은 사회적지지가 진로목표 설정과 직업정보에 기반하여 미래계획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신장될 수 있다(Ha, 2018).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교사로부터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높은 수준으로 향상 되었다(Kim, 2020). Shin(2012)은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대학생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시 높음을 보고하였다. Hong(2021) 역시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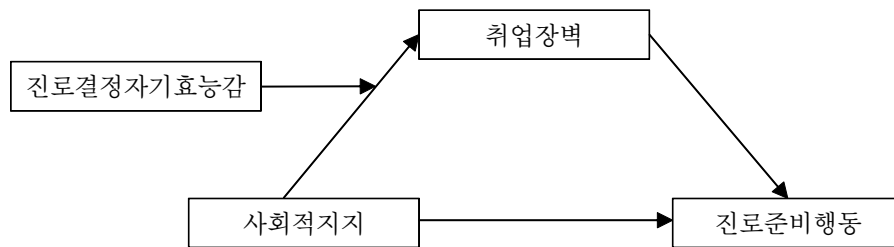
넷째, 취업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이다.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은 진로준비행동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 부족 등의 개인적인 요인이 취업정보 부족, 차별적 인식 등의 환경적인 요인보다 진로준비행동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Go, 2015). Ryu et al.(2014)은 체육계열 대학생의 취업장벽 및 진로준비행동의 연구에서 경제적 환경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한 사회구조 등의 사회적 장벽과 자기효능감 부족 등의 개인적 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Chung(2019)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

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대상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A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220명이다. 2022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주일간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220명 중 20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94명의 자료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194명 중 남학생은 72명(37.1%), 여학생은 122명(62.9%)이며, 1학년 76명(39.2%), 2학년 94명(48.5%), 3학년 24명(12.4%)이다.

2. 측정도구

가. 사회적지지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측정을 위해 M. R. Lee(2001)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의 지지(9문항), 교사의 지지(9문항), 친구의 지지(9문항)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전체 Cronbach α 는 .953이고 하위변인인 부모의 지지는 .940, 교사의 지지는 .935, 친구의 지지는 .927로 나타났다.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Benz & Taylor(1983)

의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Lee & Lee(2000)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 또 E. K. Lee(2001)가 이를 중고등학생용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E. K. Lee(2001)는 자기평가효능감을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만을 이용하였다. 이는 총 25문항으로 직업정보효능감(6문항), 목표선택효능감(11문항), 미래계획효능감(5문항), 문제해결효능감(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전체 Cronbach α 는 .957이고 하위변인인 직업정보효능감은 .878, 목표선택효능감은 .919, 미래계획효능감은 .817, 문제해결효능감은 .725로 나타났다.

다. 취업장벽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 측정을 위해 Lee(201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별(5문항), 개인의 신체적 문제(5문항), 자기이해부족(5문항), 취업정보부족(5문항), 취업준비부족(5문항), 미래의 불확실성(5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장벽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취업장벽의 전체 Cronbach α 는 .959이고 하위변인인 차별은 .854, 개인특성부족은 .912, 개인의 신체적 문제는 .935, 자기이해부족은 .928, 취업정보부족은 .919, 취업준비부족은 .866, 미래의 불확실성은 .89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895로 나타났다.

라. 진로준비행동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측정을 위해 대학생용으로 개발된 Kim(1997)의 측정도구와 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된 Park(2003)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Kim(201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수집 활동(9문항), 도구구비 활동(5문항), 실천적 노력(9문항)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Cronbach α 는 .940이고, 하위변인인 정보수집 활동은 .910, 도구구비 활동은 .785, 실천적 노력은 .89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25.0과 PROCESS macro for SPSS(ver. 4.1)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문항간 내적합치도 지수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7)를 이용하였다. 취업장벽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샘플은 10,000개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연구변인인 사회적지지, 자기결정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표 1> 참조).

<표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M	SD	왜도	첨도
사회적 지지	부모의 지지	4.16	.706	-.784	.305
	교사의 지지	4.01	.669	-.273	-.382
	친구의 지지	4.00	.673	-.550	.438
	계	4.06	.566	-.190	-.54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효능감	3.55	.761	-.481	.808
	목표선택효능감	3.72	.701	-.386	.657
	미래계획효능감	3.35	.736	.050	.124
	문제해결효능감	3.51	.804	-.480	.238
계	3.58	.676	-.341	.670	
취업장벽	차별	2.85	.851	-.173	-.118
	개인특성부족	2.50	.994	.302	-.622
	개인의 신체적 문제	1.90	.857	.836	.119
	자기이해 부족	2.53	1.113	.358	-.824

	취업정보 부족	2.51	1.040	.325	-.707
	취업준비 부족	3.21	.961	-.377	-.062
	미래의 불확실성	2.78	.962	-.161	-.45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09	.902	.513	-.502
	계	2.55	.707	-.162	-.390
진로 준비행동	정보수집 활동	3.96	.734	-.630	.700
	도구구비 활동	3.49	.837	-.240	.066
	실천적 노력	2.98	.928	.003	-.578
	계	3.48	.741	-.246	.156

2. 상관관계

사회적지지와 자기결정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구분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준비행동
사회적지지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48***	1		
취업장벽	-.543***	-.675***	1	
진로준비행동	.465***	.806***	-.521***	1

*** $p < .001$

위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와 조절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548,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인인 취업장벽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543,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465, p < .01$)가 있었다. 조절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인 취업장벽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675, p < .001$)를,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806, p < .001$)를 보였다. 매개변인인 취업장벽과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521, p < .001$)가 있었다.

3.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22)의 SPSS PROCESS macro(Model 7)를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10,000개로,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였다.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취업장벽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beta = -.322, p < .001$), 취업장벽도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beta = -.399,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취업장벽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은 취업장벽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beta = -.267, p < .01$)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도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 변화량은 .027($p < .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보였다.

<표 3>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β	SE	<i>t</i>	<i>p</i>	LLCI*	ULCI**
매개변인 모형(준거변인: 취업장벽)						
(상수)	2.601	.039	66.558	.000	2.524	2.678
사회적지지	-.322	.075	-4.305	.000	-.469	-.17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77	.063	-9.210	.000	-.700	-.453
사회적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67	.081	-3.295	.001	-.427	-.107
준거변인 모형(준거변인: 진로준비행동)						
(상수)	4.490	.195	23.050	.000	4.106	4.874
사회적지지	.339	.093	3.645	.000	.156	.523
취업장벽	-.399	.075	-5.346	.000	-.546	-.252

* LLCI: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4>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효과를 나타낸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효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값 M-1SD(-.676)를 제외하고, M과 M+1SD(.676)인 영역에서는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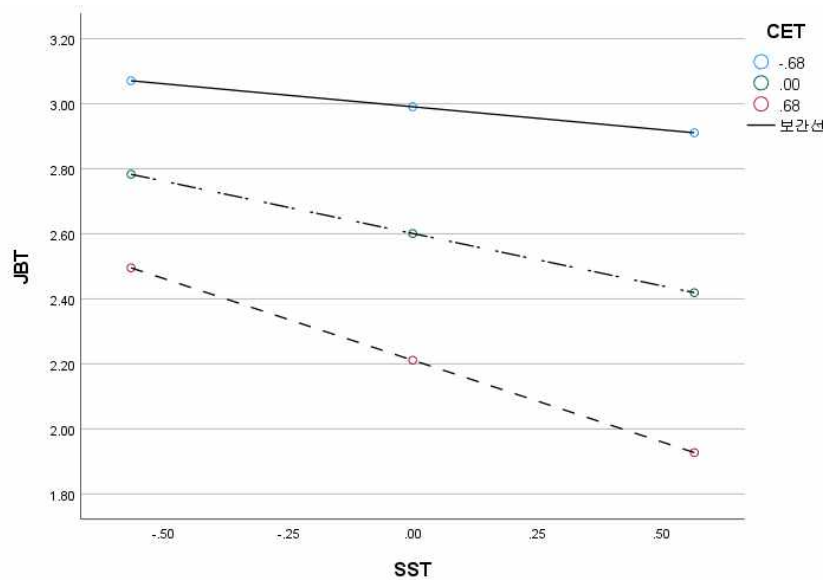
<표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효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Effect	se	t	p	LLCI*	ULCI**
-.676	-.141	.090	-1.567	.119	-.319	.037
.000	-.322	.075	-4.305	.000	-.469	-.174
.676	-.502	.095	-5.286	.000	-.689	-.315

* LLCI: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그림 2]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값 중간과 상위에 한해서이다. 사회적지지에 따라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달라지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의 증가에 따른 취업장벽의 부정적 증가율은 중간, 상위 영역에서 높아진다.



[그림 2] 사회적지지와 취업장벽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

비고: SST=사회적지지, JBT=취업장벽, CET=진로결정자기효능감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장벽은 낮아지고 취업장벽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취업준비생의 사회적지지 특히, 현실적인 지원이 취업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한다는 Cho(2020)의 연구와 일관된다. 또한,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Go(2015)의 연구를 지지한다. 특성화고등학생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아진다는 Park(2022)의 연구와도 일관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가 취업장벽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친다는 Youn(2012)의 연구를 일부 지지한다. 본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값 중간 및 상위 그룹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취업장벽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높였다.

이상의 연구결론에 근거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장벽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 친구, 교사의 사회적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를 높여 취업장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특성화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풍부한 기회(교육 및 현장체험연수, 진로코칭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도 요구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취업장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 주는 노력 또한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및 진로코칭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hn, E. H. (2015).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 국문: 안은희(2015).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각한 취업장벽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103>
- Byoun, S. Y. (2017). An exploration on characteristics and student engagement types of college students graduating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5(4), 145-172. ☞ 국문: 변수연(2017). 특성화고 출신 대학생들의 특징과 학습 참여 유형에 대한 비교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5(4), 145-172.
- Cauce, A. M., Mason, C., Gonzales, N., Hiraga, Y., & Liu, G. (1994). Social support during adolescenc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F. Nestmann & K. Hurrelmann (Ed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t* (pp. 89-108). Walter de Gruyter.
- Chi, Y. R. (2010).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국문: 지이레(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Cho, J. H. (2020).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job-seekers on job barriers and job stress: Self-efficacy as a regulation eff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 국문: 조지현(2020). 취업 준비생의 사회적 지지가 취업장벽과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을 조절 변수로.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 Chung, M. K. (201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relatedn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1), 65-81. <https://doi.org/10.34226/gcl.2019.9.1.65> ☞ 국문: 정미경(2019).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1), 65-81.

- Ferry, T. R., Fouad, N. A., & Smith, P. L. (2000).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social cognitive model for career-related choice behavior: A math and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3), 348-364. <https://doi.org/10.1006/jvbe.1999.1743>
- Go, Y. L. (2015). *A test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on Relations between employment barrier and he preparation course behavior among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고영란(2015).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장벽과 진로 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교육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Ha, S. Y. (2018).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adaptability mediated b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Korean college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1), 97-119. <https://doi.org/10.34226/gcl.2018.8.1.97> ☞ 국문: 하선영(2018).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커리어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1), 97-119.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The Guilford Press.
- Hong, S. K. (2021). *Mediating effect of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erceived by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국문: 홍선경(2021).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Hong, S. P., & Jeong, J. C. (2016). Analysis on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lassification of career decision making based on the decision scales and the preparation behaviors on the pursuit of higher education and of employment, and its influential fact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5*(5), 1-30. ☞ 국문: 홍성표, 정진철(201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진학결정수준과 준비행동에 따른 진로결정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35**(5), 1-30.
- Jeon, D. S. (2019). *The influence for social support of alternative school youth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occupation val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국문: 전다솔(2019). **대안학교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Jin, H. J. (2010).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in college students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and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국문: 진현정(2010).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Kim, B. H.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Kim, B. S. (2009). *Humans and jobs II*. Sigmappress. ㉮ 국문: 김병숙(2009). **인간과 직업 II**. 시그마프레스.
- Kim, B. W., & Kim, K. H.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국문: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Kim, H. H. (2016).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국문: 김현희(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Kim, H.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Physical symptom in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혜정(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Kim, H. J.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효진(2011).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Kim, H. K. (2020).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of teacher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identity and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혜경(2020). **특성화고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Kim, Y. J. (2021).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 dance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With a focus 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국문: 김연주(2021).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Kim, Y. S.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국문: 김윤성(2018). **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Lee, E. K. (200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H. E., & Kim, S. Y.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omestic research trends of employment barriers* [Poster presentation].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Conference, Gwangju, Korea. ㉮ 국문: 이혜은, 김신애(2015). **취업 장벽의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 Lee, H. J. (2000). Differences in cognitive styles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8*(1), 235-257. ㉮ 국문: 이현주(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38*(1), 235-257.
- Lee, J. H. (2010). *Variables associated with employment barri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이지혜(2010).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장벽과 관련변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Lee, J. H., & Jyung, C. Y. (2010). Variables associated with employment barri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2*(1), 25-47. <https://doi.org/10.23840/agehrd.2010.42.1.25> ㉮ 국문: 이지혜, 정철영(2010).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25-47.
- Lee, J. J., & Chun, C. G. (2016).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chool life adap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3*(1), 241-255. ㉮ 국문: 이정자, 전종국(2016).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은평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

- 구, 23(1), 241-255.
- Lee, J. K. (2006).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in the third grad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3), 571-586. ☞ 국문: 이정규(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Lee, K. H., & Lee, H. J. (2000).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 국문: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Lee, M. R. (2001).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to influence on the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국문: 이미라(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Lee, S. D. (2002). *A study on variables affecting career decision-making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국문: 이성도(2002).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https://doi.org/10.1016/0001-8791\(87\)90010-8](https://doi.org/10.1016/0001-8791(87)90010-8)
- Lyu, J. S.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family resilience, self-determinati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국문: 류진숙(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Min, J. S. (2020).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upport from parents, general self-efficacy, employment barriers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문: 민지식(2020).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진로결정 대처전략의 구조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Min, S. R. (2019).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for aviation service major undergraduate students and its impact on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 Journal of Tourism Enhancement*, 7(2), 227-249. <https://doi.org/10.35498/kotes.2019.7.2.227> ㉞ 국문: 민소라(2019).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진흥연구*, 7(2), 227-249.
-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20). *Employment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㉞ 국문: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2020).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 Ministry of Education (2023). *Hifive*. Retrieved February 23, 2023, from <https://www.hifive.go.kr/school/SVHSchoolIntro.do?rootMenuId=01&menuId=010201> ㉞ 국문: 교육부(202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ark, J. E. (2006).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㉞ 국문: 박지은(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Park, J. 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㉞ 국문: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Park, P. O.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㉞ 국문: 박필옥(2022). **특성화고 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 Park, S. H. (2019). *The effect of ego-identity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㉞ 국문: 박상희(201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Park, W. S. (2003).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high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15(2), 121-143. ㉞ 국문: 박완성(2003). 고등학생 대상 진로준비행동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15(2), 121-143.
- Phillips, S. D., & Paziienza, N. J. (1988).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 decision making* (pp. 1-3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yun, Y. H.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국문: 편유희(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Ryu, D. S., Park, M. S., & Kim, J. K. (2014). The effect of education satisfaction and evaluation in the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 on employment barri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ports related majoring university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3(4), 293-305. ☞ 국문: 류동수, 박문수, 김진국(2014).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대학교육 만족과 취업 프로그램평가가 취업장벽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3(4), 293-305.
- Shin, J. O. (2012).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 국문: 신정옥(2012).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Song, H. S., & Hong, H. Y. (2010).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1325-1350.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1325> ☞ 국문: 송현심, 홍혜영(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1). Jossey-Bass.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219-244.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20>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Yoon, C. H., & Ahn, T. H. (2015). The effects of motives for school choice, career belief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pecialized

-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8), 131-157. ☞ 국문: 윤초희, 안태희(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선택 동기, 진로신념과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131-157.
- Youn, K. H. (2012). *The effect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on career indecision level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 국문: 윤광현(2012).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인식이 취업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Youn, K. H., & Kim, C. H.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ived barriers to employ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 Differences i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and commerci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3(1), 341-359. ☞ 국문: 윤광현, 김충현(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 인식에 관한 연구: 공업계와 상업계고등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13(1), 341-359.
- Yu, J. A., Joe, E. A., & Lee, A. R. (2019). Mediating effects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 for undergraduat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0), 973-994.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0.973> ☞ 국문: 유지애, 조은애, 이아라(201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973-994.